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lict Perceived by Daughters-in-law and Their Coping Behavior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李 貞 蓮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ung Yeon Lee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3. 자료분석 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IV. 결과 및 분석 |
| 1. 고부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 |
| 2. 대처행동에 관한 이론 | 2. 연구문제 1의 검증 |
| 3. 연구문제 | 3. 연구문제 2의 검증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4. 연구문제 3의 검증 |
| 1. 조사대상 | 5. 연구문제 4의 검증 |
| 2. 측정도구 | V. 결 론 |
|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conflict perceived by daughters-in-law and their coping behavior.

The statistical procedures used were frequency,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conflict perceived by daughters-in-law is not very high, but, in terms of scolding, discrimination, objection to visiting the parents' home, there are some conflict found.

2) The coping scale is composed of 9 factors by 27 items and adaptation to reality is the main factor.

3) Collision with mother-in-law, avoidance, self-blame, age, the attitude of mother-in-law

about her son's marriage are proved to be influential variables of the degree of the conflict perceived by daughters-in-law.

4) Reanalysis is perhaps the significant coping pattern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mother-in-law.

I. 문제의 제기

고부관계는 환경과 생활양식이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상충되는 지위에 놓임으로써 갈등을 유발할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정자, 1988: 130).

전통사회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룩해 놓은 영역에 대한 침입자, 경쟁자로 며느리를 대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하여 '源泉的 否定'(이광규, 1975: 186) 반응을 보이게 된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관계도 변화하여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적인 권력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반면, 여성의 능력 신장과 더불어 심리적 갈등을 억압하고 인내하는 힘이 약화되어 갈등이 지배윤리에 의해 내면화되지 않고 표출되는 현대 가족에서는 외면상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고부관계가 문제시 되는 것은 고부관계에 그치지 않고 전 가족원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이광규, 1975, 186; 고정자, 1988, 130; 유명주, 1985, 262) 그럼에도 고부관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이 갈등의 원인이나 갈등정도에 대한 실태조사(고정자, 1975; 이기숙, 1975; 김용욱, 이기숙, 1977; 유가효, 1977; 이경애, 1980)이고, 갈등의 조정방안으로서 남편의 중재역할, 자부의 취업, 거주단위의 분리 등을 제안하는 정도이며 대처행동의 모든 측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가족문제에 대한 역기능적 관점을 탈피하여 어떤 가족이 더 잘 해결해 나가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부관계 자체를 항상 '문제'로 생각하거나, 고부간의 갈등 원인 규명에 집착하기 보다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고부갈등이 감소될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는 며느리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고부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대처행동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고부관계의 개선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부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고부갈등의 원인분석 연구들은 197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권력구조적인 면과 애정구조적인 면으로 고부갈등의 원인 및 변화양상을 조사한 고정자(1975, 1988)에 의하면 애정구조적인 면보다는 가사주도권으로 인한 갈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자부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유가효, 1976; 이명숙, 1985)에서는 애정구조적인 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정현(1984)은 임상치료의 대상인 고부를 관찰한 결과, 며느리는 주부역할상의 문제점, 시댁 일에 대한 참여문제, 시모와 남편과의 관계가 대부분으로 이 갈등은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기숙(1985)의 고부갈등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된 갈등은 7가지 차원으로 개념화되었는데 상대적 비교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크며, 그 외에 시모의 이기적 태도로 인한 갈등, 소외감에서 오는 갈등, 대화의 결여로 오는 갈등, 친척 및 家傭으로 인한 갈등, 손자녀로 인한 갈등, 친척 왕래로 인한 갈등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고부갈등의 관련변인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옥, 한상순(1987)의 연구에 의하면 시부모

와의 문제로 인한 갈등은 가족생활주기상 1~3단계까지는 증가하다가 4, 5단계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춘희, 정옥분(1988)의 연구에서는 별거보조형과 별거독립형이 동거보조형과 동거독립형보다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分居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父母와 同居時와는 다른 종류와 강도, 표출방식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갈등은 常存한다고 보았으며, 만며느리는 장남인 남편보다 많은 갈등을 지각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부갈등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고정자(1988)의 경우 1980년대는 1970년대에 비해 '혼자 생각한다'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며느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딸에게 호소하는 은밀한 언어적 공격행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유가효(1976)의 연구에서도 불만의 표출은 남편이나 친정식구에게 이야기 하는 언어적 공격행동이 가장 많았고, 갈등의 조정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며, 조정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부부관계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 반면 황춘선(1979), 이경애(1981), 송경아(1987)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화풀이 하기 보다는 혼자 생각하는 율이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고부간의 분리를 조정방안으로 제안한 연구(유가효, 1976; 박부진, 1981; 윤진, 1988)들은 대체로 가족간의 긴장이나 갈등관계가 심한 경우, 오히려 자녀와 별거하면서 경제적, 정서적 부양을 받는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고정자(1974)의 연구에서는 딸과의 동거 또한 고부갈등의 해결책이 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고부갈등의 원인분석과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부갈등 차이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고부갈등의 표출 또는 조정방안 연구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대처행동 이론을 고찰하기로 한다.

2. 대처행동에 관한 이론

대처행동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이라는 경제적 곤경에 직면한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한 Angell(1936), Cavan과 Ranck(1938)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로 Hill(1949)의 ABCX모델, Jet-Coaster모델, Buss(1973)의 수정이론, 그리고 McCubbin과 Patterson(1982)의 Double ABCX모델 등이 체계화되었으며, 그들은 가족자원과 위기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주요 개념으로 채택한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Bell(1977)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개인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건설적이고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장기적응방법, 일시적으로 긴장을 감소시키는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단기적응방법이라고 분류하였다.

McCubbin과 동료들(1980)은 대처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조직화와 화합을 조장하는 가족체계에서의 조화를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대처전략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후에 McCubbin, Larsen과 Olson(1983)은 가족대처방안의 개념을 가족내부 대처전략과 가족외부 대처전략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가족들이 내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방법이며, 이것을 '재조직'과 '소극적 평가'로 세분하고, 후자는 가족들이 외부의 자원을 구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지원', '종교적 지원', '공식적 지원'으로 세분하였다.

Folkman과 Lazarus(1980, 219-239)는 대처행동을 개인이 소유한 지속적인 성격특질로 보는 관점, 방어적 자아과정으로 보는 관점, 상황론적 관점 등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고 인지현상학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즉, 대처행동을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며 역동적, 양방향 과정으로서

이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매개된다고 보았다.

가족학 연구분야에서는 특정상황보다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예측될 수 있는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 및 대처방법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성, 연령, 가족생활주기, 사회계층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는데(Boss, 1985; Olson, 1983; Ventura와 Boss, 1983; Pearlin과 Schooler, 1978; Jalowicz와 Powers, 1981; 김영규, 1980; 최영희, 1982; 배종렬, 1985; 장병옥, 1985; 전세경, 1988; 강인, 1989) 대체로 성차는 발견되지 않고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이 보다 효율적인 심리적 지원이나 장기적 적응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Olson과 동료들(1983)은 가족주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문제가 있는 가족은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기다리고 뒤로 미루는 '수동적 평가'에 더 의존한다고 보고 청년기 가족과 진수기 가족에서 문제가 없는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구조적이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재정의하는 '재조직'의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문제가족은 운명론적인 '수동적 평가'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Folkman과 동료(1987)의 연구 결과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젊은이와 노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가족문제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은 직면적 대처, 사회적 지지의 추구, 계획적인 문제해결과 같은 대처방식을, 노인들은 분리, 자신에 대한 비난, 회피, 긍정적인 재평가와 같은 대처방식을 더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양식의 발달적 경향을 시사하였다.

배종렬(1985)은 가족 스트레스 중 부모 자녀간 긴장, 경제적 긴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종교적 지원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김애순(198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동적 대처행동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신비적 대처행동은 증가했으며 특히 상실상황에서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도전상황에서는 능동적인 대처행동이, 상실 또는 위협상황에서는 신비적 대처행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중년기 부부를 조사한 강인(1989)은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적극적 태도보다는 소극적 태도, 친척의 지원, 친구나 이웃의 지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대처행동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논문들이 대부분 전반적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 및 가족자원에 따른 대응방법의 차이에 관해 연구되었고, 고부갈등이라는 특정상황에 초점을 두고 대처행동의 효율성에 관심을 둔 경우는 아직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처행동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고부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없는 현 시점에서 며느리가 시도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갈등감소 방법을 대처행동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고부갈등에 관한 대처행동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셋째, 며느리가 인지한 현재의 고부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고부갈등이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 간에는 대처행동 유형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고 현재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맘며느리 혹은 외며느리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고부관계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고부갈등을 양측 모두 조사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보고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시모의 갈등 정도는 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사례수가 적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시모가 현재 생존해 있는 만며느리 또는 외며느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의 연령이 가능한한 중년기이후에 속하도록 편의적 추출과 할당표집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방법론을 수강한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학생 16명이 조사원으로 기용되었고 조사대상자들에게 면접 또는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을 기재한후 회수하였으며, 불실 기재된 것은 분석시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1) 고부갈등척도

고정자(1975, 1988), 이기숙(1985), 이경애(1981)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Likert척도로서 총 점수가 많을수록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부갈등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시모와의 갈등정도와 결혼초 시모와의 갈등정도를 각각 5점 척도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뒤 그 차이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그 차이가 -이면 갈등이 감소된 집단으로, +이면 갈등이 증가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고부갈등척도는 Cronbach's alpha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문항-전체간의 상관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한 후 0.855로 높게 나타났다.

2) 대처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5)의 개정된 척도를 수정,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을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다시 조정하여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주1)}.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0.72\sim0.85$ 로 나타나 비교적 일관성 있는 척도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를 산출하고, 고부갈등 유형 및 대처행동 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자부의 연령분포는 40대가 53.4%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고 그 다음이 30대, 50대의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42세였다.

학력수준은 고졸이하가 64.0%로 가장 많고 대졸이상 23.7%, 전문대졸이 12.3%였으며, 경제수준은 70만원 이하가 33.5%, 70만원~150만원 이하가 53.9%, 150만원 이상이 9.6%로서, 대체로 중상계층으로 표집이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상으로 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40대이고 고졸의 학력을 가졌으며 중상계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 시모와의 동거상태를 살펴보면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4.3%로 불과하고 현재 분가상태에 있는 경우가 모두 71.4

주 1) 대처행동 또는 갈등표출 행동에 관한 척도들이 많이 있으나(예를 들면, Folkman과 Lazarus, 1980, 1985; Aldwin 등, 1980; Pearlin과 Schooler, 1978; Straus, 1979; Coyne 등, 1981; Billing과 Moos, 1984; McCrae, 1984; Vitaliano, 1985; 김정희, 이장호, 1985; 김애순, 1986) 주로 부부의 대처행동에 치중하여 있으며, 영역들도 이성적 해결, 전문가와 상담, 폭력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대처행동 양식과는 구성내용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척도 개발을 시도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변 인		N	%	변 인		N	%		
자 부 의 연 령	20代	3	2.5	시부모와 동거형태	분가하고 있고 함께 살 계획이 없다.	30	25.2		
	30代	37	30.8		분가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함께 살 예정.	25	21.0		
	40代	64	53.4		결혼초 분가, 현재 동거	17	14.3		
	50代 이상	16	13.3		결혼초 동거, 현재 분가	30	25.2		
	계	120	100.0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동거	17	14.3		
자 부 의 학 력 수 준	고 졸 이 하	74	64.0	결혼당시 시 모 의 태 도	기	타	0	0.0	
	전 문 대 졸	14	12.3		무	응	답	1	-
	대 졸 이 상	27	23.7		무	응	답	120	100.0
	무 응 답	9	-		찬	성	105	88.2	
가 정 의 월 수 입	50만원 이하	15	13.0	반	대	14	11.8		
	51~70만원	27	23.5	무	응	답	1	-	
	71~100만원	13	11.3	무	응	답	120	100.0	
	101~150만원	49	42.6	시모와의 대화유형	순	종	46	38.3	
	150만원 이하	11	9.6		총	들	10	8.3	
	무 응 답	5	-		의	논	28	23.3	
	계	120	100.0		회	피	36	30.0	
				회	계	120	100.0		

%나 되고 앞으로도 함께 살지 않겠다는 비율이 25.2%인 점을 고려하면 말며느리 또는 외며느리의 경우에도 시부모와의 동거 보다는 분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당시의 시모의 태도는 찬성이 88.2%, 반대가 11.8%로서 찬성의 비율이 높다. 또한 시모와의 대화유형은 순종형이 38.3%로 가장 높고, 회피형이 30.0%이었으며 의논형 23.3%, 충돌형 8.3%로 아직까지는 순종형, 회피형이 대체적인 대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1의 검증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 원인 및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체로 갈등이 높지 않은 편이나, '실수를 했을 때 꾸중을 심하게 하신다', '시누이와 차별하여 하신다', '친정나들이나 친정 식구의 출입을 싫어 하신다' 등은 갈등이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비교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부부관계에의 개입 등은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자

의 대부분이 신혼초기가 아닌 40代인 점, 문제가 족이 아니고 정상가족인 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3. 연구문제 2의 검증

고부갈등에 관한 대처행동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principal-component 방식으로 실시하였더니 본 연구는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즉, 표 4에 제시되었듯이 직교회전후 아이겐값이 1.0이상인 9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63.8%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각 내용을 반영하여 대처행동 유형을 현실적응, 친구에 호소, 이성적 대처, 재분석, 수동적태도, 회피, 충돌, 자기비난, 전문가 도움 등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중 현실적응이 가장 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친구에 호소, 이성적 대처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갈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더 큰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현실에 맞추어 가는 대처방식을 며느리 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부부관계에서는 대처방식으로

표 2. 고부갈등의 원인

분	항	내	용	평	준	차	문	항-진	체	외	의	상	관
	1. 가정 살림 전반에 걸쳐 참견하시는 편이다.			2.61	1.26			0.41					
	2. 친정과 시댁과의 경제적 차이를 비교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1.75	0.92			0.41					
	3. 다른 며느리와 비교해서 말씀하신다.			2.61	1.27			0.69					
	4. 부부관계에 시어머니가 깊게 관여하신다.			1.91	1.01			0.66					
	5. 아들의 잘못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린다.			2.44	1.23			0.65					
	6. 집안 형편에 관계없이 옷, 용돈, 약타령을 하신다.			2.47	1.31			0.65					
	7. 친척이나 손님 앞에서만 좋은 시어머니 행동을 하신다.			2.35	1.18			0.60					
	* 8. 집안의 큰 행사에 며느리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2.56	1.13			0.08					
	9. 실수를 했을 때 이해보다는 꾸중을 심하게 하신다.			3.00	1.00			0.47					
	10. 친정 나들이나 친정 식구의 출입을 싫어 하신다.			2.70	1.06			0.61					
	11. 시누이와 차별하여 대하신다.			3.10	1.27			0.48					
	*12. 불만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신다.			2.95	1.19			0.39					
	*13. 손자, 손녀를 차별하시는 경향이 있다.			2.88	1.29			0.38					

*분석시 제외된 문항임.

신체적 폭력, 건설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연구 (이영숙, 1990)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시모와의 대화유형으로 순종형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표 1 참고).

4. 연구문제 3의 검증

며느리가 인지한 현재의 고부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다단계투입방식(stepwise)로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이 예측되었다(표 4 참고).

$$\hat{Y} = 13.03 + 1.59X_1 + 1.08X_2 - 9.15D_1 - .80X_3 + .19X_4$$

\hat{Y} : 며느리의 갈등정도

X_1 : 충돌적 대처행동

X_2 : 회피적 대처행동

X_3 : 자기 비난적 대처행동

X_4 : 자부의 연령

D_1 : 결혼시 시모의 태도 가변수 (찬성 : 1, 반대 : 0)

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시모와의 동거형태, 결혼시 시모의 태도 등 5개 변인과 각 대처행동 9개 요인이 회귀식에 투입되었으나 그 중 5개 변인만이 다른 변인을 통제 후 영향력 있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부가 충돌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취할수록, 자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부갈등이 증가하며 자기 비난적 대처행동을 취할수록 고부갈등이 감소하며, 또한 결혼시 시모가 결혼에 찬성한 경우엔 반대한 경우보다 갈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상 5개 변인의 설명력은 59.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력이나 가정의 월수입, 시모와의 동거형태 등은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통계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연구문제 4의 검증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3. 며느리의 대처행동 요인분석

변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Community
	현실친구에 적응	친구에게 소대	이성적 처	재분석 태	회피적 태	충돌	자기 비난	전문가 도움		
1. 내가 옮지만 형편에 맞추어 살아간다.	.77	.02	.11	-.01	.14	.06	.07	.03	-.03	.63
2.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65	.34	.24	.06	-.19	.03	-.04	.04	.07	.65
3. 나의 경우보다 더 심한 사람과 비교하여 위안을 얻는다.	.64	.04	-.24	.09	-.00	-.18	.12	-.03	-.03	.54
4. 남편, 자녀와의 관계로 긴장을 갖는다.	.58	-.14	.33	-.12	.10	.19	.11	.17	.15	.59
5. 갈등이 풀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	.51	-.16	-.45	.25	-.02	.13	.23	-.23	.00	.67
6. 자신의 심정을 누구인가 말한다.	.02	.72	.12	.06	.01	-.22	-.01	-.16	.03	.62
7. 가까운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13	.69	-.06	.01	.12	-.14	.13	.12	.26	.64
8. 친구와의 외출로 기분을 푼다.	.23	.68	-.03	.08	.06	.19	.01	.09	-.04	.58
9.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다.	.07	.09	.74	.25	.10	-.03	-.06	-.12	.07	.65
10.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25	.03	.60	.13	.19	-.22	.27	.09	.12	.62
11.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12	.12	-.49	.37	.16	.19	.06	.35	-.19	.63
12.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되풀이 하여 생각한다.	.07	.01	.10	.79	-.12	.08	-.17	.13	-.01	.71
13.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문제를 분석한다.	-.09	.09	.19	.66	.39	.01	.13	.04	.02	.66
14. 시어머니가 한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	.43	.11	-.08	.49	-.19	.01	-.17	.11	-.28	.60
15.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06	.00	-.05	-.01	.77	.05	.00	-.07	.03	.60
16. 남편이 증재해 주기를 기대한다.	-.16	.35	.26	.05	.48	.34	-.02	-.22	.25	.68
17. 친척들이 증재해 주기를 기대한다.	.04	.33	.24	-.20	.47	-.15	.01	.21	-.39	.65
18. 그 일이 끝나거나 사라지기를 바란다.	.24	.19	-.27	.23	.47	.16	.10	-.12	.24	.55
19. 내 감정을 조절하려 애쓴다.	.12	-.09	-.20	.19	-.06	.75	.03	-.01	.16	.69
20.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14	-.11	-.11	-.02	.34	.64	.21	-.01	.01	.61
21. 그 문제를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한다.	.19	.33	.18	-.13	-.01	.38	.22	.38	.19	.57
22. 되든 안 되든 위험부담이 큰 일을 한다.	.08	.07	-.05	-.14	.13	-.06	.78	-.12	.03	.68
23. 최악의 경우를 각오한다.	-.11	.03	.08	.05	-.07	.29	.75	-.07	.01	.68
24. 문제를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07	.02	-.05	.12	-.17	-.01	.00	.81	-.05	.71
25. 내가 인내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09	-.05	-.03	.10	.05	-.06	-.36	.65	.07	.58
26.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과 이해를 받는다.	.02	.20	.09	-.13	.10	.12	.00	.02	.83	.79
27. 전문가나 책을 통해 조언, 정보를 듣는다.	.33	.07	-.09	.32	.02	-.39	.30	.20	.40	.66
Eigenvalue	3.59	2.78	2.44	1.79	1.50	1.40	1.34	1.22	1.16	
Pct. of Var.	13.3	10.3	9.0	6.6	5.6	5.2	5.0	4.5	4.3	63.8

표 4. 고부갈등에 관한 회귀분석

변 인	B	SE B	Beta	T	Sig T	R ²
충돌적 대처행동	1.59	.32	.38	4.92	.00	.594
회피적 대처행동	1.08	.24	.33	4.47	.00	
시모의 태도	-9.15	1.93	-.35	-4.74	.00	
자기 비난적 대처행동	-.80	.30	-.20	-2.63	.00	
자부의 연령	.19	.08	.17	2.32	.02	
(상 수)	13.03	4.98		2.62	.01	

표 5. 고부갈등 변화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

고부갈등 변화	현실 적용		친구에 호소		이성적 대처	
	N	M	N	M	N	M
감 소 집 단	40	18.50	41	8.61	41	9.76
증 가 집 단	36	18.11	36	10.03	36	9.50
t값	t= 0.50		t= -2.60*		t= 0.50	
	재 분석		수동적 태도		회 피	
	N	M	N	M	N	M
감 소 집 단	38	11.74	40	11.30	41	10.15
증 가 집 단	35	10.54	35	11.23	36	11.22
t값	t= 2.12*		t= 0.11		t= -2.03*	
	충 돌		자기 비난		전문가 도움	
	N	M	N	M	N	M
감 소 집 단	40	3.98	41	6.05	40	5.65
증 가 집 단	36	4.58	35	5.71	36	6.39
t값	t= -1.35		t= 0.79		t= -1.88	

*P<.05

9가지 대처행동 중 친구에 호소, 재분석, 회피 등의 방법이 고부갈등의 증가집단과 감소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그 밖의 대처행동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표 5 참고). 즉, 결혼초기에 비해 고부갈등이 감소한 집단은 증가한 집단에 비해 친구에 호소, 회피 등의 대처방법을 적게 쓰는 반면, 재분석의 대처방법은 보다 많이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친구에 호소, 회피 등의 방법이 현재의 갈등 감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본질적인 태도변화를 일으키지는 못 하므로 갈등을 증가시

키는 반면, 재분석의 대처행동은 갈등 감소에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재분석은 가족 치료 이론의 '재정의(Relabeling)', 혹은 '재구성(Reframing)'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주2)},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존판념이 과연 올바른가, 보다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자신에겐 잘못이 없었는가 등을 다시 재고해 보는 태도 수정과정을 의미한다. 재분석은 개인의 논리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미의 준거틀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고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대처방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 2) 재정의는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로서, 주어진 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감정과 태도를 좀 더 구체화하고 긍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미와 가치판단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긍정적인 재정의는 개인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송성자, 1987, 215-216 참고).

김정옥, 박순희(1990) 연구에서는 대응행동과 가족적응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밝혀졌을 뿐 어떤 대응행동이 적응에 도움을 주는지는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다소나마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며느리의 갈등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고부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대처행동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고부관계의 개선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 꾸중을 심하게 하는 것, 시누이와 차별하는 것, 친정나들이나 친정식구들의 출입을 싫어하는 것 등의 문항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며느리의 대처행동 유형으로는 9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그중 현실적응, 친구에 호소, 이성적 대처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3)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 정도는 충돌, 회피의 대처행동을 취할수록, 며느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자기 비난적 대처행동을 취할수록 갈등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결혼시 시모의 태도가 찬성인 경우 갈등이 적었다.

4) 고부갈등이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간에는 대처행동 유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결혼 초기에 비해 고부갈등이 감소한 집단은 증가한 집단에 비해 친구에 호소, 회피 등의 대처방법을 적게 쓰는 반면, 재분석의 대처방법은 보다 많이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 정도 및 변화에 대처행동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전통가족에서는 민요, 노동요를 통해 또는 무당을 찾아감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으나(이광규, 1975) 현대 가족에서 며느리는 다양한 대처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며느리가 실제로 많이 취

하는 대처유형이 '현실적응'으로 나타났으나 이 방법이 고부갈등 감소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효율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재분석의 대처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존 관념을 재정의하여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는 시모의 측면에서도 연구가 행해져야 하며, 의사소통 과정을 관찰하여 보다 역동적인 대처행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 인(1989). 중년기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 고정자(1975). 한국가정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권정자(1984). 취업 여부에 따른 고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김애순(1986). 성인기의 연령 증가와 상황 평가에 따른 대처 행동 양식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5) 김영규(1980). 연령, 성, 사회계층별 일상생활상의 스트레스와 대응 방법의 비교.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6) 김정옥·박순희(1990). 가족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27-145
- 7) 김정희·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구성 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7, 127-138
- 8) 박영숙(1987). Minuchin의 이론체계내에서 한국 가정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배종렬(1985). 가족의 일상 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0) 송경아(1987). 고부간의 갈등 원인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1) 송성자(1987). 가족관계와 가족 치료 서울: 흥익제.

- 12)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 자녀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3) 유가효(1976). 한국 도시 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중류 apt가족의 자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4) 유영주(1985).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15) 윤 진(1988).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 출판사
- 16) 이경애(1981).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7) 이광규(1981). 한국 가족의 심리 문제. 서울 : 일지사.
- 18) 이명교(1985). 도시 부부의 권력 구조와 갈등 해결 표출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 이기숙(1975). 한국 가정에 있어서의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분석-가족관계의 측면에서-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 이기숙(1977).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동거론과 별거론 중심-대한가정학회지 15(2)
- 21) 이기숙(1980). 근대 한국의 고부관계의 의식.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9권.
- 22) 이기숙(1985). 한국 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3) 임춘희·정옥분(1988). 분거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의식 유형-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 26(1).
- 24) 장병옥(1985).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5) 전세경(1988).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6) 최영희(1982). 입원환자와 일반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12(2), 91-103.
- 27) Bell, J.M.(1977).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 illness and wellness behaviors. *Nursing Research* 26(2), 136-141.
- 28) Billing, A.G., & Moos, R.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29) Boss, P.G., Gage, G, Greenberg, J. & McCall, D.P. (1985). The Management of stress in mid-life Minnesota families. St. Paul, Minnesota :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30) Collins, D.L., Baum, A. & Singer, J.E.(1983). Coping with chronic stress at three mile island : psychology and biochemical evidence. *Health Psychology* 2, 149-166.
- 31) Coyne, J.C., Aldwin, C. & Lazarus, R.S.(1981). Depression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439-447.
- 32) Folkman, S.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22, 457-459.
- 33) Folkman, S. & Lazarus, R.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34) Folkman, S. Lazarus, R.S., Pimley, S. & Novacek, J.(1987). Age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processes. *Psychology and Aging* 2(2), 171-184.
- 35) Jalowice, A. & Poweres, M.J.(1981).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1), 10-15.
- 36) McCrae, R.R.(1984).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 Loss, threat, and challe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19-928.
- 37)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38) McCubbin, H.I., Joy, C., Cuble, A.E., Patterson, J.M. & Weedie, R.(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125-141.
- 39) McCubbin, H.I., Larsen, A.S., Olson, O.H.(1982). Family coping strategies(F-Copes), In Olson et al., (Eds.),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40)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 41)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42) Ventura, J.N. & Boss, P.G.(1983). The family coping inventory applied to parents with new bab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867-875.